

# 명태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 9월 7일까지, 최우수상 20만원 ... 명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

고성군은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13회 고성명태와 바다축제'를 앞두고, 주민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이며, 응모자격은 고성군 거주자 또는 고성군 소재 직장인이거나 시설 수강자 등 고성군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축제 주제인 명태

브랜드 이미지제고 프로그램, 군민회합과 관광객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주변관광지 연계프로그램 등이다.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해 고성군청 기획감사실(680-3212)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didtns316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명태축제위원회 및 군 관계자들이 적합성(명태

축제 성격), 경제성(사업비의 규모와 적정성), 창의성(타 축제와의 차별성, 독창성) 등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입선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5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시상한다. 시상자 발표는 9월 중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 “동해안 해변 안전관리 대체로 만족”

### 속초해경 설문조사 결과

올 여름 화진포 등 동해안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해양경찰의 해변안전관리와 친절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으며, 구조장비 보충과 수영구역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속초해양경찰서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해양경찰 안전관리요원을 상주시킨 7개 해변(화진포, 송지

호, 삼포, 속초, 낙산, 하조대, 주문진)을 찾은 물놀이객 295명(남 162명, 여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해양경찰 해변안전관리와 친절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개선 사항으로는 구조장비 보충과 안전요원 증가배치, 수영구역 확대, 안전요원 복장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해변안전관리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3명(72%), 보통이다 71명(23%)로 나타났으며, 인명구조

등 처리는 신속했다 229명(77%), 보통이다 65명(22%), 신속하지 못함 2명(1%)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긴급신고번호 122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 130명(44%), 들어 본적이 있다 188명(40%), 잘 모른다 47명(16%)으로 응답했다. 여자경찰 구조대에 대해서는 266명(90%)이 찬성했으며, 29명은 반대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보건소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군장병, 정신질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연중 운영

고성군보건소(소장 홍영순)는 고성거주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군장병, 정신질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정신보건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중독과 자살예방을 교육한다.

고성군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관련 프로그램인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과 가정방문 및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물론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자살위험군 발견 및 연계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군장병을 위한 군장병 우울증 선별 검사와 자살예방교육을 비롯해 경찰공무원 조울증 선별검사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노인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발견검사 및 자살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고성군보건소 2층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면된다.

또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과 출산부를 위한 산후 우울증 예방교육 및 아동

〈문의 : 681-0683〉 박승근 기자

###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2]

## 고성군 지역 의병 이덕근(李德根)

1885 ~ 1907. 11. 4

강원도 고성군 남면(南面) 상정월리(上汀月里)사람이다.

김옥배(金玉培) 의진에 가담하여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활동, 종교와 그 단체를 통한

계몽 활동, 각종 학회와 사립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활동,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등 각 방면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것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시기인 1907년 10월 20일 고성군내에서 활약한 의병소모장 김옥배의 휘하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선생(당시 23세)은 의병소모장의 지시에

따라 권석근(權錫根)과 같이 고성군 일대에서 일본군 수비대의 동정을 정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시 일본 헌병대(장전순 사주재소)에 피체되어 총살의 형에 처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출典 : △韓國 獨立運動史 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8輯, P.90(의병편 1)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IV) (光復會江原道支部, 2004.12.) P.93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

### S라인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프로젝트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S라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만성질환 위험요인 30세이상~65세미만, 체질량지수 25kg/m<sup>2</sup>이상 비만인 40명 대상 운동프로그램이다.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1기를 시작으로 실시했으며,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S라인 만들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S라인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과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초체력테스트 및 혈압·혈당을 측정하고 참가자

중 희망자 한해 건강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 된다.

또 체중감소율을 높이기 위해 체력테스트 평가를 토대로 운동처방을 비롯해 식습관평가, 저열량식단 및 본인의 열량에 맞는 칼로리 개인별 열량처방을 한다.

한편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지역주민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연중 운영하며 단계별 검진 등을 통해 치매예방관리에 힘쓰는 방침이다. 신청은 고성군보건소 2층 정신보건센터에서 접수받으며 문의전화는 ☎ 681-0683

박승근 기자